

타종교 예술가

불교에서 한국인 원형탐구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의 오랜 전통과 심오한 사상에 깊이 매료돼 불교를 소재로 예술활동을 벌여오며 나름대로의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는 타종교 예술가들이 있다.

종교가 다름에도 불교를 즐겨 소재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마

디로 서양문화가 흥수처럼 밀려들어 사회 전반을 장악한 오늘날 한국인의 정체성과 원형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코 만나지는 것이 불교이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적 향기에 감싸여 작품속에 녹여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교

를 종교라는 차원보다는 민족 정서의 원형 또는 본질로 이해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술가로는 소설가 최인호, 시인 정채봉, 동화작가 정채봉, 한국화가 유광상·두시영, 조각가 유영교, 성악가 조종상, 사진작가 김대벽 주명덕 씨 등을 꼽을 수 있다.

근대불교 선종의 중흥조 경허스님을 모델로 한 장편소설 <길 없는 길>의 작가 최인호(52)씨. 그는 스스로를 '불교적 가톨릭주의자'라고 표현한다. "하나의 진리가 서양에서는 가톨릭으로 동양에서는 불교로 나타났다"는 게 그의 지론. 불교는 곧 우리 민족의 원형질을 형성하는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 작가들의 작품에 불교의 향기가 배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의 이러한 견해는 소설 <왕도의 비밀> <보려고 하는 놈이 누구냐> 등에 녹아 있다.

7년간의 산고 끝에 발표해 올해 시 부문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른 <사랑하다가 죽어버려>

리의 작가 정호승(47)시인. 역시 가톨릭 신자인 그의 작품 <사랑하다가...> 등에서는 불교의 선적 경지가 짙게 드러난다.

<멀리가는 향기> <꽃그늘 환한 물> <오세암> 등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펴내고 있는 정채봉(51)씨의 작품을 살펴보면 역시 불자가 아닐까 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도 가톨릭신자로 "한국역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불교는 종교를 초월한 진

하며 그것은 불교로 귀결"된다는 것. 유씨는 불교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 불교통신대학까지 수료했다.

민족미술협회 대표를 지낸 화가 두시영(48)씨는 종교가 가톨릭이지만 불자미술가들의 모임인 '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의 회원으로 참여할 정도로 불교에 관심이 크다. 지난해 운주사 천불천탑을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한 바 있는 그는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이 공동 참여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

문학·그림·조각·사진등 장르 다양
최인호·정채봉·김대벽·유광상씨등
불교의 문화가치 작품속에 녹여

우의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현대적 반가사유상을 발표해 관심을 모은 조각가 유영교씨도 가톨릭 신자.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식 조각보다 우리 것을 소재로 한 조각에 훨씬 공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좋은 소재를 얻기 위해 경주 석굴암이나 남산동의 불상들을 자주 보러다닌다.

오른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인천에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인 화가 유광상(48)씨는 대한성공회 신도. 20년전부터 불상을 주 소재로 그림을 그려온 유씨는 "세계속에서 한국적인 예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선 우리민족의 독특한 소재를 찾아야

것에서부터 수수알만큼 작은 것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사리함 가운데 목칠함은 조각밖에 남아 있지 않으며 녹이 잔뜩 든 구리함의 크기는 가로 14cm, 세로 7.2cm, 높이 9c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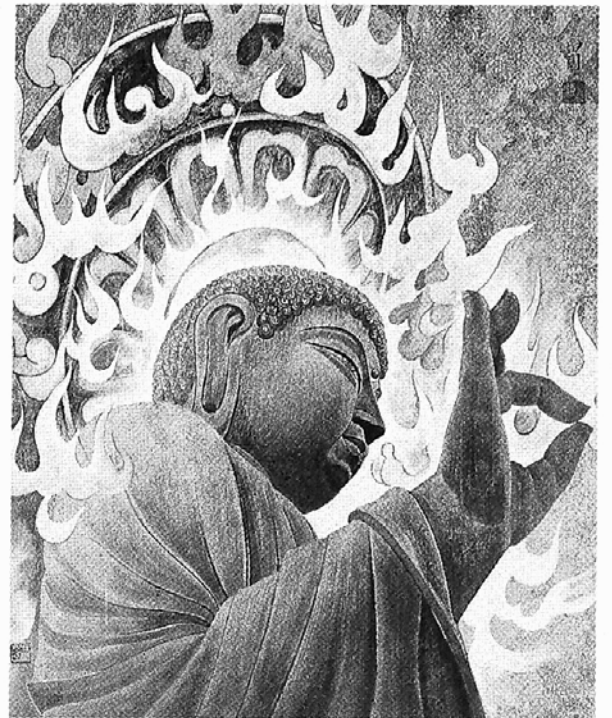
발굴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사리들이 타원형에 표면이 반들반들한 것으로 보아 사람의 손에 의해 가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춘호교수(경산대)가 '일연성사와 인각사'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다.

보리방송문화상 공모
불국토와 보리방송모니터회는 공동으로 전 방송사를 대상으로 올해 한해 동안 제작방송된 불교관련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우수작품에 대한 제5회 보리방송문화상을 공모하고 있다.

방송을 통한 불교문화 계승 창달과 불교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작품에 대해 시상하며 추천서 작품개요서 추천작 녹화테이프 등을 갖춰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02)712-5812

◇기사남쳐 '불심시삼' 쉽다



◇대한성공회 신도인 한국화가 유광상씨의 작품 '천안 각원사 좌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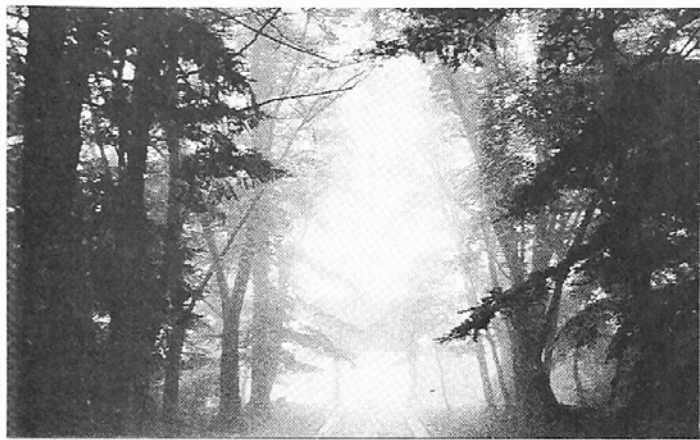
곡하고 불교음악회에서 연주했다. 그는 대표작으로 <벽화로 보는 불교이야기>등을 냈다.

안양교회 장로인 사진작가 김대벽(68)씨는 송광사 중창불사 사진 등 송광사와 인연이 깊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불상이나 탑 등 불교 조각에 스며있는 깊은 종교성을 느낀 개성교집인지만 그는 사찰에 가고 스님들과 교류하는 일이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교에 깊이 심취해 있다. 주명덕씨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갖게되었다"는 입장. 해인사 사진을 주로 찍어온

그는 대표작으로 <벽화로 보는 불교이야기>등을 냈다.

안양교회 장로인 사진작가 김대벽(68)씨는 송광사 중창불사 사진 등 송광사와 인연이 깊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불상이나 탑 등 불교 조각에 스며있는 깊은 종교성을 느낀 개성교집인지만 그는 사찰에 가고 스님들과 교류하는 일이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교에 깊이 심취해 있다. 주명덕씨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갖게되었다"는 입장. 해인사 사진을 주로 찍어온

이경숙·김지연 기자



◇사진작가 주명덕씨의 작품 '해인사 입구'.

"렌즈에 비친 한국불교 연구"

美서 불교사진 논문 석사학위 류영수씨

"처음엔 중국사화인 차이나타운을 주제로 잡았는데 곧 한계를 느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속내를 잘 모르고 걸모습만 찍게 되니 주위사람들도 사진에서 깊이를 느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우연히 샌프란시스코 보림사의 선우스님을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이야말로 내가 추구할 사진주제구나' 느끼고 그때부터 미국내 한국불교에 매달린 것이지요."



님의 개인적 수행도 다큐멘터리로 담았다.

'나무아미타불'展에 미국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한국불교에 대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토로하는 것을 보고 작은 포교라도 한 것같아 인상깊었다고 하는 류영수씨는 '불교'를 주제로 한 사진다큐멘터리를 평생 작업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류씨는 내년 4월 강남 포토갤러리에서 '나무아미타불' 사진전을 갖고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순회전도 계획하고 있다. <속>

발해불교유물 사리19과 발견

中 曠曠강성 영안서

중국曠曠강성 영안(寧安)시에서 최근 발해(698~926년)의 최고급 불교유물로 평가되는 사리 19개가 발견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 사리는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의 도성 유적지인 발해(渤海)진 백묘자(白廟子)촌에서 지난 8월말 마을주민들이 길을 닦던 도중 발견, 현지 문화재당국에 보고함으로써 발굴된 것이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돌출 목칠함 구리함 금도금함 은함 금합 유리함 등 7종으로 된 사리함 속에 담겨 있는 사리는 유유빛을 띠고 있으며 지름 1cm안팎의 큰

문화소식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공모를 통해 채택된 가사는 전문 작곡가에게 의뢰, 노래를 만들고 유영대중가수를 통해 음반으로 취입한 후 5천여개의 테이프를 제작 전국에 보급해 지지 찾기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일연성사 학술회의

일연학연구원(원장 법타스님)은 19일 영천 은해사에서 일연성사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지중도씨(경산문화연구소 연구원)가 '삼국유사와 불교사상' 진영선님(동국대 강사)이 '일연성사의 생애와 사상'

전수천 설치작품전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아온 설치작가 전수천씨가 15일부터 29일까지 조선일보 미술관(02-724-6328)에서 '인간의 사고와 사유의 체계'를 주제로 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작품들은 죽어가는 자연에 대한 안타까움과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기본 모티브로 한 5점의 대형 설치작품과 20여점의 평면작업이 선보인다.

'직지' 소재 노래가사 공모

청주시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직지)을 주제로 한 노래가사를 공모한다. 현재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직지 찾기 운동'을

다라니경 보존비결 '지질 때문'

밀도 높고 알칼로이드성분 세균번식 막아

한일 공동연구

현존 최고의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126호)이 1천2백여년 동안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은 지질이 밀도가 매우 높고, 모르핀 니코틴 등 알칼로이드 성분을 이용해 세균과 벌레를 막았던 최고급지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지난 89년부터 일본 교토(京都)박물관과 공동으로 첨단장비를 이용, 다라니경에 사용된 종이를 정밀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투루 곱질의 섬유질로 만든 다라니경의 종이는 밀도가 제작당시인 8세

기의 일본종이에 비해 2배나 높게 측정됐다는 것. 나무망치로 두들겨 밀도를 높이는 도침(鑄砒)과 목주 등을 깔려 두께를 고르고 광택이 나도록 하는 마연(磨研) 등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다. 또 알칼로이드가 함유된 황백나무열매에서 채취한 황색색소를 바른 착색지이기 때문에 벌레나 세균을 막고 먹의 번짐을 차단하는 한편 향내를 풍겨 종이의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존지이기에 비결. 박물관측은 "대개 종이 1백년도 안돼 부식되는데 반해 이 종이는 1천2백여년의 세월을 견뎌냈다"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고급지"라고 강조했다.

윤기석 기자

열린마음
열린기쁨



혼자이어서 더욱 쓸쓸한 사람들
혼자가 아니어서 쓸쓸하지 않은 사람들
황량한 삶의 바다를 건너는 우리에게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따뜻이 손내밀고 싶은 가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난 승 합장

10월 행사 안내

일시	행사내용	비고
10월 17일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설립기념법회	
	이동목욕차량 '신나는 목욕탕' 시연회	노인장애인을 위한 무료 이동 목욕 서비스 차량
	운흥사 창건 기념비 제막식	
	노인 무료 합동 결혼식	60세 이상 노인부부 11쌍 각종 결혼서비스 및 제주도 신혼여행
	경로잔치	포항시 거주 노인 5백명 초청 국악인 초청 공연
10월 19일 ~26일	무료 양로원 "정애원" 건립을 위한 도자기 전시회	위치:포항시 청하면 청계리 건축예정: 98년 무의탁노인 50명 수용
10월 26일	보살계수계법회	고산 큰스님
	무료 양로원 건립 성취 기원 만등불사	